

고등학교의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남 양산시를 중심으로 -

변은경* · 김규수** · 최원석***

Factors Influencing Smoking Tempt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 Focused on Yangsan City in Gyeongsangnam-Do -

Eun Kyung Byun* · Kyu Soo Kim** · Won Seok Choi***

요약 : 본 연구는 청소년인 고등학교생들의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금연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하는 8개 고등학교에서 1,0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과 흡연유혹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흡연유혹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흡연유혹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24시간동안의 담배개피수가 많을수록,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흡연지식이 낮을수록 흡연유혹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등학교생들이 흡연유혹을 극복하고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신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합한 좀 더 개별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흡연, 흡연관련요인, 흡연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re affecting the smoking tempt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s adolescents. For the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of 1,025 students from 8 high schools located in the city of Yangsan in Gyeongsangnam-Do was carried out.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longer in the period of smoking, have more smoking friends, are worse in the attitude of smoking, consume more cigarettes a day or 24 hours, have fewer times of 24 hours' no smoking for the past 1 year, and have less knowledge of smoking a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smoking temptation. This suggests the need of developing individual, practical programs through which home, school and society make social and psychological approaches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hen help those students overcome smoking temptation and raise their self-efficacy.

Key Words : smoking, smoking-related factors, the knowledge of smoking, the attitude of smoking, smoking temptation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Silla)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Daegu)

*** 부산북구정신보건센터(Busan Buk-Gu Mental Health Center), 교신저자(E-mail: mission2000@hanmail.net, Tel: 051-334-3200)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은 과중한 학업, 치열한 입시경쟁,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청소년 문화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학생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일탈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청소년기의 일탈행위의 주요 요인인 흡연행위는 음주, 약물남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성인기의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평생의 건강을 위협할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김희경, 200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6)’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시작 연령이 1998년 15세에서 2006년 12.5세로 2.5세 정도로 낮아졌다. 고등학교 3학년은 20% 가량이 담배를 피웠으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흡연율은 12.8%로 성인 여자 흡연율 5.2%보다 높았다. 흡연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차적인 심각성은 음주실태도 나타나는데, 음주시작연령 역시 1998년 15.1세에서 2006년 13.1세로 2세 정도 낮아졌다. 18세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이중 절반은 과도한 음주를 즐겼다. 고2와 고3 여학생은 성인 여자의 음주율 36.3%보다 높은 40.4%, 37.0%에 달했다.

청소년의 흡연은 무엇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성인흡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질병발생과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고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성인흡연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점(맹광호, 2002)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소년기는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성숙해가는 시기로,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내적 갈등에 대한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신영주, 1995).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생물학적 요인은 니코틴의 약리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친구, 부모, 형제, 대중매체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의도, 스트레스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 부적절한 대응기술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inkelstein, 1992).

청소년들이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흡연을 지속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는 니코틴의 약리작용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Hall et al., 1993), 청소년들의 흡연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자각하는가의 여부가 흡연의도 및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서경현, 1998)고 하여 흡연행동을 일으키는 흡연유혹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흡연권유나 흡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여 친구의 흡연권유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하게 되기 때문이다.

흡연유혹은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 자신의 의도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하는 정신/신체적 의존성을 지닌 강한 열망으로 정의(장성옥, 2004)하고 있는데, 강미옥(2005)은 흡연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정신적 의존 상태인 흡연유혹은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탐구해야 할 중심적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연을 돕기 위해서는 흡연 유혹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계획되

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배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타나는 금단증상, 흡연에 대한 습관적 탐닉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특성,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요인의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흡연유혹 하위요인간의 관계 정도를 알아본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흡연유혹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흡연유혹에 대한 선행연구

Velicer et al.(1990)은 흡연유혹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특별한 상황에 충동적으로 열중할 수 있는 강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금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인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국내 연구에 의한 흡연유혹의 개념적 정의는 “흡연유혹은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 자신의 의도에 반하더라도 흡연하게 하는 정신/신체적 의존성을 지닌 강한 열망으로 흡연유혹은 각 개인이 형성한 흡연유혹 상황 조건에 영향을 받고 흡연이 허용되었던 상황과 흡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던 경험이 흡연유혹 상황과 연계된다.”로 정의하여 흡연유혹은 사

회 맥락적 상황과 심리적 상황 그리고 개인적 경험이 연관된 복합적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장성옥, 2004).

Velicer et al.(1990)이 개발한 흡연유혹 도구는 흡연을 유도하는 위험상황에서 얼마나 대상자들이 흡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는 흡연충동을 일으키는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적 특성으로는 긍정적 상황에서의 흡연유혹, 부정적 상황에서의 흡연유혹, 그리고 습관적 유혹에 대한 열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흡연하기 쉬운 위험상황을 설정하고 흡연하고 싶은 것과 개인이 흡연과 연관되어 형성한 습관에 근거한 흡연열망을 평가하는 것으로 흡연유혹은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과 습관성 열망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연구로는 1970년대부터 흡연실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시행되어져 왔으며,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실험연구와 금연의도, 금연동기, 금연관련 지식, 일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관련 조사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약물요법을 사용하거나 니코틴 패치, 금연교육,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들을 종합하여 금연을 유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최종태, 1993).

그러나 다양한 방법의 연구는 흡연실태, 흡연지식과 태도와 관련한 요인 파악에 그치거나 금연프로그램이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식 교육 또는 단순한 시청각 교육 등으로 진행되어 흡연을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니코틴 대체물인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 등의 약물요법은 쉽게 구입할 수 없다는 단점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금연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신환 외, 1993).

최근 청소년의 흡연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흡연유혹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성례(1997)의 흡연유혹 상황에서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조절 능력인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김애숙(2003), 이은림(2003), 강미주·김효신(2005), 강미옥(2005) 등의 흡연유혹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이은림(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흡연유혹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되는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습관성, 체중조절, 타인의 흡연상황에서 나타나는 흡연유혹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등학생의 흡연유혹에 미치는 요인

1) 흡연지식과 흡연태도

흡연지식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하며, 흡연행동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강미옥, 2005). 흡연지식이 낮은 중학생은 흡연경험률이 높으며 흡연피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김선희, 1997),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흡연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숙희, 2002). 또한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더 많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옥, 2000).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체계적인 흡연교육에 의한 지식이 부족하여 흡연유해성 지식은 흡연유혹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고정자, 1992) 흡연행동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건강 교육에 있어 흡연행

동에 중요한 요인이다. 흡연무경험자가 흡연태도가 높고 흡연유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애숙, 2003), 비흡연자가 흡연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숙희, 2002).

또한 이선영(2000)의 연구에서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금연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 흡연을 결정하는 흡연지식과 태도가 흡연유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 흡연율의 감소와 금연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될 것이다.

2) 흡연 관련 요인

(1) 금연경험과 횟수

금연경험으로 금연은 지속하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금연을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금연성공의 요인이 되어 일단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번도 금연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Zhu et al, 1999). 또한 Zhu et al.(1999)은 흡연량이 적을수록, 금연을 시도했던 기간이 길수록, 금연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성공률이 높다고 하였다.

(2) 흡연기간과 흡연량

흡연시기는 흡연을 시작한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흡연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 행위 역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김희경, 2002).

흡연량은 “흡연유혹이 높을수록 흡연을 더 많이 한다”(김애숙, 2003)는 연구결과로 볼때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학생의 흡연유혹의 연구(변은경, 최원석, 2007)에서 7일 동안의 담배개피수와 24시간 담배개피수가 흡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습관성 흡연이 니코틴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신경학적 적응과정을 발생시켜 내성과 신체적 의존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흡연량이 증가하고 니코틴 의존은 흡연을 반복하게 한다.

장영순(2002)의 연구에서는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에 대한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동기가 강하다고 하였고,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심리적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우관계

청소년 시기의 교우관계는 사회생활상의 습관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등학교 흡연동기로 가장 많이 언급된 요인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선영, 2000)라고 나타났고,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하는 학생이 많다고 나타나(김정숙, 2004), 흡연이 또래집단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정욱(2000)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은 친구들의 흡연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장영순(2002)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 유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음주연령

음주의 정의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소년 비행측면에서 흡연기간의 장기화가 술이나 다른 약물 남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약물남용은 비행과 범죄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남중락 외, 1996). 또한 매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음주 및 기타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1.5-23.0배 높았고, 매일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흡연 및 기타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4.5-42.9배 높다고 한다(이윤수 외, 1998). 이러한 흡연과 음주는 상호작용을 가져온다.

흡연 관련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청소년

흡연유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율의 감소와 금연뿐만 아니라 흡연예방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I. 조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8개 고등학교의 남·여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0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응답이 미비한 5부를 제외한 1,025부를 자료 분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사전에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학년 주임의 동의를 얻어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 조사 도구

1) 종속변수

(1) 흡연 유희

Plummer et al.(2001)이 개발하고 박남희(2002)가 국내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강미옥(2005)이 타인의 흡연상황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부정적 감정적 상황 2개 문항, 긍정적 사회적 상황 2개 문항, 습관성 2개 문항, 체중조절 2개 문항, 타인의 흡연상황 4개 문항 등 5개의 하부척도로 나누어지고 각 문항당 5점 척도로 ‘전혀 피우지 싶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피우고 싶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상황에 대한 유혹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는 부정적 감정 상황 .91, 긍정적 사회 상황 .83, 습관성 .72, 체중조절 .88이었으며, 강미옥(2005)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 상황 .87, 긍정적 사회 상황 .71, 습관성 .81, 체중조절 .91, 타인의 흡연상황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상황 .96, 긍정적 사회 상황 .91, 습관성 .87, 체중조절 .94, 타인의 흡연상황 .95였다.

2) 독립변수

(1) 흡연유해성 지식

세계보건기구(WHO, 1982)가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회의에서 발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조사내용지침”에 근거하여 박영규·강윤주(1996)가 개발하고 백경옥(2001)이 중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 중 흡연해독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맞다’는 1점, ‘틀리다’ 또는 ‘모르겠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였다.

(2) 흡연 태도

세계보건기구(WHO, 1982)가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회의에서 발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조사내용지침”에 근거하여 박영규·강윤주(1996)가 개발하고 백경옥(2001)이 중학생용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매우 그렇다’는 1점, ‘약간 그렇다’는 2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3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4점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백경옥(2001)의 연구에

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강미옥(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63으로 나타났다.

(3) 흡연관련요인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 흡연시기, 금연경험, 1일 동안의 담배개피 수, 7일 동안의 담배개피 수,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음주연령 등의 문항은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1.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주요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살펴보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요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셋째, 흡연유혹의 하위요인은 하위요인간의 관계정도를 살펴 흡연유혹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넷째, 흡연유혹 하위요인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차항의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이를 진단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경상남도 양산시 고등학교의 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2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학년(주요변수1)	고등학교 1학년	289	28.2
	고등학교 2학년	437	42.6
	고등학교 3학년	299	29.2
성별	남	511	49.9
	여	514	50.1
경제수준	상	38	3.7
	중	775	75.6
	하	211	20.6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276	26.9
	보통	600	61.5
	불만족	149	12.6
흡연연령	16세	50	4.9
	17세	337	32.9
	18세	436	42.5
	19세	200	19.5
	20세	2	0.2

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의 분포도는 고등학교 2학년 42.6%(437명), 고등학교 3학년 29.2%(299명), 고등학교 1학년 28.2%(2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분포도는 남학생 50.1%(514명), 여학생 49.9%(51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의 분포도는 중 75.6%(775명), 하 20.6%(211명), 상 3.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의 분포도는 보통 61.5%(600명), 만족 26.9%(276명), 불만족 12.6%(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연령의 분포도에서는 18세 42.5%(436명), 17세 32.9%(337명), 19세 19.5%(200명), 16세 4.9%(50명), 20세 0.2%(2명) 순으로 나타났다.

2. 흡연유혹 관련 요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흡연유혹 관련 요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표 2> 흡연유혹 관련 요인의 정도

Category	N	M	SD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 (주요변수2)	1025	.81	±5.11
흡연기간 (주요변수3)	1025	3.38	±11.60
7일 동안의 담배개피 수 (주요변수4)	1025	5.25	±21.58
24시간동안의 담배개피 수 (주요변수5)	1025	.96	±3.77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주요변수6)	1025	3.60	±8.52
음주연령 (주요변수7)	1025	17.78	±2.81
흡연지식 (주요변수8)	1025	12.14	±6.20
흡연태도 (주요변수9)	1025	55.14	±8.1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는 평균 0.81이며, 표준편차는 ±5.11 정도로 나타났다. 흡연기간은 평균 3.38이며, 표준편차는 ±11.60 정도로 나타났다. 7일 동안의 담배개피 수는 평균 5.25이며, 표준편차는 ±21.58 정도로 나타났다.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 수는 평균 .96이며, 표준편차는 ±3.77 정도로 나타났고, 음주연령은 평균 17.78이며, 표준편차는 ±2.81 정도로 나타났다. 흡연지식은 평균 12.14이며, 표준편차는 6.20 정도로 나타났고, 흡연태도는 평균 55.14이며, 표준편차는 ±8.1로 나타났다.

3. 흡연유혹 하위요인간의 관계

흡연유혹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부정적 감정상황은 긍정적 사회상황($r=.780$), 습관성($r=.731$), 타

<표 3> 흡연유혹 하위요인간의 관계

	부정적 감정상황	긍정적 사회상황	습관성	체중조절	타인의 흡연상황
부정적 감정상황	1				
긍정적 사회상황	.780***	1			
습관성	.731***	.844***	1		
체중조절	.572***	.673***	.762***	1	
타인의 흡연상황	.705***	.851***	.857***	.779***	1

***p<.001

인의 흡연상황($r=.705$), 체중조절($r=.572$) 순으로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정적 사회상황에서는 타인의 흡연상황($r=.851$), 습관성($r=.844$), 체중조절($r=.762$) 순으로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습관성에서는 타인의 흡연상황($r=.857$), 체중조절($r=.762$) 순으로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중조절은 타인의 흡연상황($r=.779$)이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부정적 감정상황, 긍정적 사회상황, 습관성, 체중조절, 타인의 흡연상황은 상호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4.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흡연유혹 하위요인별 최적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흡연유혹에 대한 영향요인분석에서 변수간의 공변량 존재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공변량 존재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오차항간의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분석 결과 오차항간의 상관성은 없었으며, 다중공선성의 진단에서는 7일 동안의 담배개피수와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수

<표 4> 부정적 감정상황에 미치는 요인의 최적모형

Model	B	Std. Error	Beta	t
constant (상수)	5.578	1.473		3.787***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주요변수2)	-.003	.013	-.006	-.220
흡연기간 (주요변수3)	.067	.007	.327	9.089***
24시간동안의 담배개 피 수(주요변수5)	.125	.023	.197	5.440***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주요변수6)	.021	.008	.075	2.644**
음주연령 (주요변수7)	.088	.074	.030	1.186
흡연지식 (주요변수8)	-.021	.021	-.025	-.986
흡연태도 (주요변수9)	-.074	.010	-.192	-7.294***
R ²	.366			
F	82.958***			

p<.01, *p<.001

와 상관성이 높았고, 나이와 음주연령이 상관성이 높았다. 이에 7일 동안 담배개피수와 나이를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부정적 감정상황에 미치는 요인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부정적 감정상황에 미치는 최적 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감정상황에서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 음주연령, 흡연지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기간의 영향력은 $\beta=.327$, 24일 동안의 담배개피수의 영향력은 $\beta=.197$,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의 영향력은 $\beta=.075$, 흡연태도의 영향력은 $\beta=-.192$ 이다.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부정적 감정상황에 미치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설명력은 $R^2=.366$ 로 36.6%로 나타났다.

<표 5> 긍정적 사회상황에 미치는 요인의 최적모형

Model	B	Std. Error	Beta	t
constant (상수)	5.422	1.028		5.275***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주요변수2)	-.003	.009	-.009	-.337
흡연기간 (주요변수3)	.041	.005	.286	7.932***
24시간동안의 담배개 피 수(주요변수5)	.118	.016	.265	7.315***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주요변수6)	.012	.006	.062	2.192*
음주연령 (주요변수7)	-.015	.052	-.007	-.280
흡연지식 (주요변수8)	-.023	.015	.039	-1.548
흡연태도 (주요변수9)	-.045	.007	-.166	-6.297***
R ²	.363			
F	81.969***			

*p<.05, **p<.01, ***p<.001

따라서 흡연기간이 길수록, 24 동안의 담배개피 수가 많을수록,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부정적 감정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2) 긍정적 사회상황에 미치는 요인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긍정적 사회상황에 미치는 최적 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 음주연령, 흡연지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기간의 영향력은 $\beta=.286$,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 수의 영향력은 $\beta=.265$,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의 영향력은 $\beta=.062$, 흡연태도의 영향력은 $\beta=-.166$ 이다.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긍정적 사회상황에 미치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설명력은

<표 6> 습관성에 미치는 요인의 최적모형

Model	B	Std. Error	Beta	t
constant (상수)	6.006	.984		6.103***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주요변수2)	-.032	.009	-.101	-3.693***
흡연기간 (주요변수3)	.040	.005	.280	7.990***
24시간동안의 담배개 피 수(주요변수5)	.154	.015	.354	10.040***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주요변수6)	.004	.005	.023	.821
음주연령 (주요변수7)	-.044	.050	-.022	-.876
흡연지식 (주요변수8)	-.035	.014	-.060	-2.435*
흡연태도 (주요변수9)	-.046	.007	-.174	-6.742**
R ²	.413			
F	78.150***			

*p<.05, **p<.01, ***p<.001

$R^2=.363$ 로 36.3%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기간이 길수록,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수가 많을수록,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긍정적 사회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3) 습관성에 미치는 요인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습관성에 미치는 최적 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음주연령,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의 영향력은 $\beta=-.101$, 흡연기간의 영향력은 $\beta=.280$,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 수의 영향력은 $\beta=.354$, 흡연지식의 영향력은 $\beta=-.060$, 흡연태도의 영향력은 $\beta=-.174$ 이다.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습관성에 미치는 요인

<표 7> 체중조절에 미치는 요인의 최적모형

Model	B	Std. Error	Beta	t
constant (상수)	7.195	1.057		6.806***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주요변수2)	-.033	.009	-.110	-3.532***
흡연기간 (주요변수3)	.006	.005	.042	1.052
24시간동안의 담배개 피 수(주요변수5)	.147	.017	.359	8.886***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주요변수6)	.001	.006	.003	-.095
음주연령 (주요변수7)	-.091	.053	-.048	-1.696
흡연지식 (주요변수8)	-.028	.015	-.052	-1.840
흡연태도 (주요변수9)	-.053	.007	-.215	-7.287***
R ²	.209			
F	38.079***			

*p<.05, **p<.01, ***p<.001

의 다중회귀분석 설명력은 $R^2=.396$ 로 39.6%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수가 많을수록, 흡연지식이 낮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습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체중조절에 미치는 요인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체중조절에 미치는 최적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흡연기간,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음주연령, 흡연지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의 영향력은 $\beta=-.110$,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 수의 영향력은 $\beta=.359$, 흡연태도의 영향력은 $\beta=-.215$ 이

<표 8> 타인의 흡연상황에 미치는 요인의 최적모형

Model	B	Std. Error	Beta	t
constant (상수)	10.864	1.867		5.819***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 경험 횟수(주요변수2)	-.018	.017	-.031	-1.111
흡연기간 (주요변수3)	.051	.009	.196	5.402***
24시간동안의 담배개 피 수(주요변수5)	.195	.041	.242	4.709***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주요변수6)	.006	.010	.016	.548
음주연령 (주요변수7)	.282	.580	.075	.485
흡연지식 (주요변수8)	-.044	.027	-.040	-1.600
흡연태도 (주요변수9)	-.065	.013	-.132	-5.019***
R ²	.370			
F	65.203***			

*p<.05, **p<.01, ***p<.001

다.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체중조절에 미치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설명력은 $R^2=.209$ 로 20.9%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수가 많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체중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타인의 흡연상황에 미치는 최적 모형

흡연유혹 하위요인인 타인의 흡연에 미치는 최적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음주연령, 흡연지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기간의 영향력은 $\beta=.210$, 24시간 동안의 담배개피 수의 영향력은 $\beta=.376$, 흡연태도의 영향력은 $\beta=-.134$ 이

다. 흡연유희 하위요인인 타인의 흡연에 미치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설명력은 $R^2=.351$ 로 35.1%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기간이 길수록, 24시간 동안의 담배 개피수가 많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흡연유희 하위요인인 타인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흡연태도가 낮을수록, 24시간 동안의 담배 개피수가 많을수록, 과거 1년의 24시간 금연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흡연지식이 낮을수록 흡연유희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흡연연령에서 18세와 17세가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는 흡연연령이 가장 많은 시기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연구결과(김미라, 2002; 박현자, 2007), 중학교 2학년이라는 연구결과(이선영, 2000; 정주동, 2004), 초등학교라는 연구결과(김두환, 2007)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6)에서 청소년의 흡연연령이 초등학교로 점차 낮아지고 여학생의 흡연을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과 여학생을 고려한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흡연 프로그램 개입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흡연 유희 하위요인간의 상호 정적인 관련성은 흡연유희에 관련한 요인들이 단독적인 영향보다 복합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흡연기회를 높이고 금연과 흡연감소율을 저하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각각의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

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이 입시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정서로 인하여 흡연을 한다는 결과(장영순, 2002)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안정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흡연태도는 흡연유희의 부정적 감정상황, 긍정적 사회상황, 습관성, 체중조절, 타인의 흡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지식은 습관성에만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이선영(2000)의 연구에서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흡연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흡연학생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덜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최정옥, 2000)처럼 고등학생은 이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지식수준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흡연유해성 지식이 흡연행위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지적한 단순한 지식전달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흡연유해성 지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었던 6회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6회의 흡연 예방프로그램(노정리, 1996),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9회 금연프로그램(김수진, 1999), 흡연지식, 사회적 영향에 저항하는 기술 및 또래집단의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과 같은 청소년의 흡연 유해성지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흡연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흡연량은 부정적 감정상황, 긍정적 사회상황, 습관성, 체중조절, 타인의 흡연상황에, 흡연기간은 부정적 감정상황, 긍정적 감정상황, 습관성, 타인의 흡연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환(2007)의 연구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

이 어릴수록, 흡연의 양이 많을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습관성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금연교육이 담배를 피우기 전에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여 흡연이 습관화되어 심리적 의존이 생기기 전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적, 정서적, 심리적인 흡연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흡연하는 친구 수는 부정적 감정상황, 긍정적 사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선희(2007)의 연구에서 흡연하는 친구 수가 증가할수록 흡연경험과 흡연빈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래규범에 순응하고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상당히 강한 압력을 받으며, 이러한 압력으로 인하여 흡연이 시작되어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7). 대부분 흡연친구들을 중심으로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흡연청소년의 금연프로그램은 흡연하는 친구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유혹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여 유혹대처기법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 주고 금연을 통해 또래집단에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연경험 횟수는 습관성과 체중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균 5~7회의 금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한진희, 2002), 금연은 지속하기 힘들지만 금연시도는 금연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 양해규(2000)의 연구에서 금연교육은 대상자 특성에 관계없이 금연의사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고 금연기간이

길수록 금연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금연의사가 있고 금연기간이 길어진다는 연구결과(이선영, 2000)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연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니코틴은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을 통해 섭식행위와 음식물 대사에 관여하여 체중감소효과가 있어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금연시도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과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더 신중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선호형태 조사(김미라, 2002)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시기, 한 달에 한번 정도, 지도자는 전문가를, 장소는 학교, 연계형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응답이 높다는 조사결과는 금연을 성공시키기 위한 금연교육에 고려할 요소로 확인된다.

음주연령은 흡연유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연령과 흡연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어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흡연이 음주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숙희(2002), 박현자(2007)의 연구와 흡연이 음주유무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음주횟수, 음주량과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박현자, 2007)와 함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후 음주연령과 흡연과의 관계에 대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등학생들이 흡연유혹을 극복하고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흡연예방과 금연을 높일 수 있는 정신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합한 좀 더 개별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미옥, 2005,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적 흡연예방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미주·김효신, 2005,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 영향 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8(4): 121~142.
- 고정자, 1992, “청소년의 흡연지식과 흡연태도가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37~49.
- 김두환, 2007, “흡연실태 및 흡연관련 요인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 2002,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태조사 연구 -성남시 정부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1997,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1999,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흡연행위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숙, 2003, “일 지역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4, “울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2, “청소년 흡연행위의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376~386.
- 남중락·감신·박재용·한창현·하영애, 1996, “대구시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요인”, 『예방의학학회지』, 29(3): 451~470.
- 노정리, 1996, “남자고등학생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흡연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광호, 2002, 『청소년 흡연예방운동 시범학교 모범사례집』,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 문숙희, 2002,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금연실태와 관련요인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희, 2002,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실제는 model])을 이용한 청소년의 금연변화단계 예측요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7, “청소년들의 흡연경험 및 흡연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동간호학회지』, 13(3): 318~328.
- 박영규·강윤주, 1996, “학동기 아동의 흡연행동 및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7(9): 798~809.
- 박현자, 2007, “흡연여부에 따른 공업고등학교 남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섭취 실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옥, 2001,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은경·최원석, 2007, “일부지역 중학생의 흡연유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7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6, 『2006년 제 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 서경현, 1998, “울산지역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래, 1997, “흡연청소년을 위한 자기조절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주, 1995, “청소년의 자의식 및 역기능적 태도와 우울 성향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규, 2000, “금연교육이 청소년의 흡연지식,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0,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건강위험행위 연구 -서울시 일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수·이혜리·강윤주, 1998,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 사용 실태”, 『가정의학회지』, 19(1): 43~57.
- 이은림, 2003, “여고생의 흡연유희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욱, 2004, “흡연유희 개념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1): 160~171.
- 장영순, 2002, “고등학생의 흡연동기와 담배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와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정주동, 200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따른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도 소재 중심-”, 강
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시범학교 연구보고서」.
- 최신환·김종한·최종태, 1993, “니코틴 중독의 금단증상
과 약물요법의 부작용”, 「가정의학회지」, 14(1): 9~16.
- 최정욱, 2000, “일부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행태”, 중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태, 1993, “니코틴 의존 흡연자에게 금연 성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7, 「중·고생 흡연실태조사」.
- 한진희, 2002, “니코틴 중독의 평가와 치료”, 「대한생물치
료정신의학회」, 8(10): 13~26.
- Hall, S. M., Munoz, R. F., Reus, V. I., and Sees, K. L.
1993. “Nicotine, negative affect, and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5): 761~767.
- Kouimtsidis, C., 2000, “Role of craving in substance misuse”,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3(3): 299~303.
- Plummer, B. E., Velicer, W. F., Redding, C. A.,
Prochaska, J. O., Rossi, J. S., Pallonen, U. E., and
Meier, K. S., 2001 “Stage of change, decisional
balance, and temptation for smoking measurement
and validation in large, school-based population of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s*, 26, 551~571.
- Velicer, W. F., DiClemente, C. C., Rossi, J. S., and
Prochaska, J. O., 1990, “Relapse situation and
Self-efficacy : An integrative model”, *Addictive
Behaviors*, 15: 271~283.
- Winkelstein, M. L., 1992, “Adolescent smoking : Influential
factors, past preventive efforts, and future nursing
implicatio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7(2):
120~127.
- WHO, 1982, *Guideline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 Report
of WHO Meeting held in Helsinki, Finland.
- Zhu, S., Sun, J., Billings, S., Choi, W., and Malarcher, A.,
1999, “Predictors of smoking cessation in U. S.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6(3): 202~207.

원 고 접 수 일 : 2008년 6월 9일
1차심사완료일 : 2008년 8월 8일
2차심사완료일 : 2008년 8월 28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8년 9월 17일